

베트남 학습자의 한국어 경어법 오류 양상 연구

Phan Hoang My Thuong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과정(제1저자)

권순희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교신저자)

- I. 서론
- II. 연구 방법 및 분석 결과
- III. 한국어 경어법의 인식 및 사용 실태 분석
- IV. 결론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가 범하게 되는 경어법 오류 현상을 비교 언어학적 관점에서 그 원인을 규명하여 경어법 교수학습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비교 언어학적인 관점으로 언어 사용 양상을 규명하고자 한 것은 외국인 학습자가 목표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 모국어의 간섭을 받는다는 것에 착안한 것이다. 특히 성인 학습자의 경우는 5세 이전의 이중언어 학습자에 비해 모국어의 간섭을 더 받게 된다.

베트남어에도 경어법이 존재하는데 베트남어 경어법과 한국어의 경어법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베트남어 경어법은 어휘에서만 나타나지만 한국어 경어법은 어휘와 문법 모두에서 나타난다. 둘째, 베트남에서는 가족 호칭어를 직장에서도 애용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직장에서 사용하는 상하관계, 직급 차이로 인한 적절한 호칭어와 경어 표현이 따로 존재한다. 셋

째, 베트남 가정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보통 존댓말을 사용해야 하는데, 한국 가정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반말을 쓰는 것도 허용된다.

베트남에서 한국어 학습자는 주로 베트남에 있는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때문에 실제 한국인을 만나 회화를 할 기회가 많지 않다. 그 결과 재학 중에는 한국어 경어법을 사용할 실제적인 언어 상황에 놓이는 일이 많지 않으며 경어법 사용 빈도도 높지 않다. 그러나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한국인과 같이 일을 하면서 직접 의사소통을 하는 상황이 되면 경어법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경어법 사용이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베트남 학습자들의 한국어 경어법의 어휘적 오류와 문법적 오류는 무엇인가?
- 2) 어휘적 오류와 문법적 오류의 원인은 무엇인가?

2. 선행 연구 검토

본 연구에서는 ‘경어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학자에 따라서 ‘경어법’ 외에도 여러 용어를 사용해 왔다. 남기심 · 고영근(1985)에 따르면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법을 존비법(尊卑法), 공손법(恭遜法), 주체를 높이는 법을 존경법(尊敬法), 객체를 높이거나 특별히 자기를 낮추어 말하는 법을 겸손법(謙遜法), 겸양법(謙讓法)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학자에 따라 주체높임과 자기낮춤을 아울러 공대법(恭待法), 경양법(敬讓法)이라고도 하며, 이 모든 높임법을 경어법(敬語法), 존대법(尊待法), 대우법(待遇法)이라 부르기도 한다.

한국어 경어법은 다음과 같이 어휘적 측면과 문법적 측면에서 특징을 가진다. 먼저 어휘적 측면에서 첫째, 상대나 제3자를 높이기 위해 직업이나 직급 등의 호칭어 뒤에 ‘님’을 붙여서 아버님, 사장님, 교수님, 형님 등의 경어 표현을 쓴다. 그런데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과거에는 평범하고 존경을 받

지 않은 직업이었지만 오늘날 달라진 사례도 있다. 예를 들면, 요즘 한국에서는 ‘기사’에 ‘님’을 붙여서 ‘(택시) 기사님’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¹⁾ 또한, ‘사장님’은 높은 직급의 사람을 의미하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을 일컬어 소수 사람들에게만 쓴 말이었는데 오늘날 한국 사회는 민주화가 되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대등한 관계라는 인식을 하여 작은 음식점 주인이나 과일 가게 주인이라도 ‘사장님’이라고 불린다. 그렇지만 모든 호칭어 뒤에 ‘님’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님’, ‘형님’이라는 말은 있지만 ‘언니님’, ‘오빠님’이라는 말은 없다. 그런데 여동생으로서 친오빠를 높이기 위해 ‘오라버니’라는 말이 있고 아내로서 자기 남편의 형을 높이기 위해 ‘시아주버니’라는 말이 있다. 즉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해 모든 호칭어 뒤에 꼭 ‘님’을 붙이는 것은 아니다.

둘째, 경어법을 쓰기 위해 〈표 1〉과 같이 일부 일반 어휘를 특수 어휘로 바꾸는 경우도 있다.

〈표 1〉 한국어 경어법의 특수 어휘

명사		동사	
일반 어휘	특수 어휘	일반 어휘	특수 어휘
나	저	데리다	모시다
나이	연세	만나다	뵙다
남편	부군	먹다	드시다/잡수시다
말	말씀	묻다	여쭙다
밥	진지	아프다	편찮으시다
사람	분	있다	계시다
생일	생신	자다	주무시다
아내	부인	주다	드리다
이	치아	죽다	돌아가시다
이름	성함		
집	택		

1) 베트남에서는 기사라는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기사님’에 해당하는 표현이 없고, ‘기사’에 해당하는 표현만 있다.

또한 한국어 경어법의 문법적 범주에서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경어법에 관한 주격 조사와 여격조사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즉, 주체 경어법을 쓸 때 주격조사 ‘이/가, 은/는’은 주격조사 ‘께서’로 바뀌고 객체 경어법을 쓸 때 여격조사 ‘에게’는 여격조사 ‘께’로 바뀐다.

둘째, 주체 경어법을 쓰기 위해 동사 뒤에 ‘-(으)시-’ 어미를 붙이는 현상이다. 그러나 모든 동사에 ‘-(으)시-’ 어미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체 경어법을 위해 일부 동사는 ‘자다→주무시다, 먹다→드시다/잡수시다, 있다→계시다, 아프다→편찮으시다’ 등 특수 어휘로 써야 한다.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어 경어법에서도 특수 어휘가 있다. 특수 어휘는 <표 2>처럼 명사와 동사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베트남어 경어법의 특수 어휘

명사		동사	
일반 어휘	특수 어휘	일반 어휘	특수 어휘
chồng (남편)	phu quân (부군)	ăn, uống (먹다, 마시다)	dùng (드시다)
đám cưới (결혼식)	hôn lễ(혼례)		
đám ma (장례식)	đám tang/tang lễ(장례식)	chết(죽다)	mất, từ trần, qua đời, tạ thế (돌아가시다), hy sinh (희생하다)
khách (고객, 손님)	quý khách (고객님, 손님)		
người(명)	vị(분)		
này(집)	tư gia(댁)	cho(주다)	tặng, biếu, dâng (드리다)
tên (이름)	quý danh (성함)		
vợ (아내)	phu nhân (부인)	ngồi(앉다)	an tọa (앉으시다)

<표 2>와 같이 베트남에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높이기 위한 phu nhâñ(부인)과 다른 사람의 남편을 높이기 위한 phu quâñ(부군)이라는 말

이 존재하는데 한국과 달리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 모든 일반 사람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주석, 수상 등 지위가 높은 남자 지도자의 아내와 공주, 여자 대통령 등의 남편에게만 쓴다. 그 외에도 한국어에서 ‘치아’라는 어휘는 사람을 위한 ‘이’라는 일반 어휘의 경어 표현처럼 사용되는 말이며 ‘이빨’은 낫은 말로 동물에 쓰는 말인데 베트남어에서는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지 않고 ‘이’를 의미하는 răng(랑)이라는 말을 같이 쓴다는 차이점도 있다.

베트남에서는 친족 호칭어의 경우 특이사항이 있다. 가족 범위를 뛰어 넘어서 직장에서 직함보다 친족 호칭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이 문화는 한국 직장 문화와 다르다. 한국 직장 문화에서는 직함을 사용하여 경어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많은 한국어 전공 베트남 학습자들은 한국 회사에서 처음 근무할 때 ‘사장님 >이사님 >부장님 >차장님 >과장님 >대리님’ 등의 직급에 따른 호칭어 체계에 익숙하지 못하다.

또한, 베트남 직장생활에서 외국인을 소개하거나 부를 때 영어의 영향으로 상대방을 높일 때 베트남 사람은 ‘미스 김(Miss Kim), 미스터 박(Mr. Park)’이라는 말을 쓰는데 한국의 직장생활에서는 ‘미스(Miss), 미스터(Mr.)’를 잘 쓰지 않는 편이다. 대신 한국인은 상대방을 부를 때 김 교수님, 김 과장님, 김 선배님, 김○○ 씨 등의 말을 더 선호한다. 특히, 미스(Miss)는 1970~1980년대 다방에서 서비스를 하는 직원에게 썼던 말이라서 현재까지도 한국에서는 베트남과 달리 미스(Miss)는 높임 표현이 아니다.

한국어 경어법과 베트남 경어법에 관한 선행 연구는 언어학적 대조 연구(다오티미칸, 2004; 구엔민충, 2007; 딘 란 흐엉, 2010; 루 탄 투이, 2011; Hoang Thi Bich Ngoc, 2014; 쩐티 하이 하, 2015)와 베트남인의 한국어 경어법 사용 양상에 관한 연구(임미경, 2013; 서현원, 2013; 응원옥빈향, 2015)로 대별된다.

베트남 경어법에 관한 비교 언어학적인 연구를 한 다오티미칸(2004)은 양국의 표준말로 여겨지는 베트남의 하노이말과 한국의 서울말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베트남어 양국언어의 친족 호칭어와 지칭어를 분석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호칭어, 지칭어에 한정하여 경어법을 다루고 있어 다양한 어휘적 경어 표현을 언급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구엔민충(2007)은 한국어는 경어법이 잘 발달되어 있지만 베트남어는 경어법이 그렇지 않다면서 이러한 특징은 두 언어에서 형성된 호칭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딘 란 흐엉(2010)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 호칭어는 유교문화에 근거한 사회제도 구성, 일상생활의 윤리의 영향이라고 본다. 언어예절의 영향으로 호칭어를 통해 한국인과 베트남인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상대방에게 경어를 표현한다고 보고 있다.

루 탄 투이(2011)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1, 2, 3인칭 대명사를 대조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한국어에서는 웃사람에게 말할 때 2인칭 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베트남어에서는 그렇게 하면 높임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여 일반적으로 2인칭 대명사를 생략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Hoang Thi Bich Ngoc(2014)은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경어표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제시하여 한국어를 배우는 베트남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줄 만한 연구이다. 한국어의 경어 표현은 문법 및 어휘 측면에서 모두 나타나는데 베트남어의 경어 표현은 주로 어휘 측면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찐티 하이 하(2015)는 4가지의 사회언어학적 요소인 호칭어, 연령, 친소관계, 상하관계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높임법을 비교 연구하였다.

이상의 연구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경어법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했는데 주로 문법적 범주보다 어휘적 범주에 더 많이 초점을 둔 것이다. 따라서 두 언어의 경어법은 문법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대조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여전히 부족하다.

베트남인을 위한 한국어 경어법 사용 양상에 관한 연구로는 김혜련(2009), 임미경(2013), 서현원(2013), 응원옥빈향(2015)이 있다.

김혜련(2009)은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공손 표현의 특징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에 거주한 베트남 결혼 여성의 한국어의 공손 표현 오류를 발견했고

오류 양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임미경(2013)은 베트남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경어법 사용 양상을 조사하여 그 특징과 오류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경어법 교수 학습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자료를 만들었다. 특히, 이 논문은 베트남 결혼이민자와 한국 남편의 친족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시부모, 남편의 동기와 그 배우자, 그리고 남편이 존대 대상이 될 경우의 경어법 사용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다.

서현원(2013)은 일상 언어생활에서 베트남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 호칭어와 지칭어를 사용할 때 어떤 오류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고,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미디어 분석과 심층 면담을 실시했다.

응원옥빈향(2015)은 한국어와 베트남어 높임법의 체계를 대조 분석하여 한국에 있는 30명의 베트남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높임법 교육 내용을 구안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연구 참여자 수가 적고 한국어 능력 수준이 높은 고급 학습자의 설문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학습자들이 높임법에 관한 오류를 왜 범하는지 깊이 분석하지 못했고 그들이 한국어 교육을 받을 때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조사하지 못했다. 이상의 네 연구는 베트남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라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어 경어법은 문어와 구어에서 모두 사용되는데 문어에서보다 구어에서 더 복잡하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구어에서는 화자와 청자, 그리고 제3자의 친-소 관계와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발화 장소와 상황 등의 여러 요소에 따라서 경어법 사용 방식도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카가와 마사오미(2007: 103)에 따르면 경어법은 일상생활에서의 사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장(場)에서의 토론이나 연구 발표 등에서도 사용되므로 그 사용 범위는 상당히 넓다고 하였다. 또한, 베트남 학습자들은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부분 번역보다 한국 기업의 통역사, 한국 관광객을 위한 안내원 등의 통역 위주 직업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베트남 학습자들은 구어의 경어법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여 구어의 경어법 사용에 취약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나카가와 마사오미(2007)처럼 문어보다 구어를 더 중시하고 구어에서 경어법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및 분석 결과

1. 연구 참여자와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후에(Hue)외국어대학교의 한국어학과의 재학생과 졸업생이다. 재학생과 졸업생을 선정하는 것은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경어법 사용 양상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함이다.

후에(Hue)는 베트남의 경주시라 불릴 만큼 지방에 위치하고 역사가 깊고 오래된 관광 도시이다. 이 도시는 하노이(Hanoi), 호치민(Hochiminh) 등의 베트남 대도시와 달리 한국어학과가 있으나 한국인이 거의 거주하지 않고 다만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인들이 여행을 위해 방문하는 곳이다. 따라서 후에(Hue)외국어대학교의 한국어 학습자들은 베트남의 다른 대도시 학생과 달리 한국어에 관한 아르바이트를 할 기회도 적다. 이로 인해 대학교 때 주로 책과 드라마, 그리고 한국어학과 교사를 통해 한국어를 학습한다.

그런데 학교에서 언어를 배우는 것과 실제적으로 그 목표어를 사용하는 것이 늘 똑같은 것은 아니다. 대화할 때 화자와 청자, 상황 맥락, 대화 장소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존댓말 또는 반말을 해야 하는지 선택하기가 베트남 학습자에게는 쉽지 않다. 따라서 그들이 한국어 경어법을 쓸 때 어떤 어휘적인 오류와 문법적인 오류를 범하는지 왜 그런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표 3>과 같이 예비조사(재학생: 26명, 졸업생: 16명), 본조사(98명), 심층면접(7명)을 실시하였다.

〈표 3〉 연구 참여자 및 조사 시기

항목	연구 조사 시기	연구 참여자				조사 방식
		초급	중급	고급	합계	
예비조사	2016년 8월말 ~10월초	7명	23명	12명	42명	이메일, 페이스북
본조사	2017년 11월 23일 ~12월 10일	30명	36명	32명	98명	페이스북
심층 면담	2017년 3월말 ~12월중	2명	2명	3명	7명	페이스북, 전화통화

예비조사를 진행함으로써 베트남 학습자의 경어법에 대한 인식을 알아 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경어법을 쓸 때 어떤 유형의 오류를 범하는지 예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조사에서 베트남 학습자의 한국어 경어법에 대한 실태를 더 잘 파악하기 위해 초급·중급·고급 학습자를 대다수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대부분 베트남 학습자들은 베트남 결혼 이민자들과 달리 학사 때 한국에 와보지도 못하고 한국인과 생활해 보지도 못해서 한국어 경어법에 관한 실제적인 상황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또한 베트남 학습자들은 취직이나 유학을 성취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토픽 - TOPIK)에 응시한다. 현재, 후에(Hue)외국어대학교에서는 매년 두 차례(4월과 10월) 토픽 시험을 주선하고 있어 학습자들이 쉽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따라서 졸업할 때까지 대부분 학습자들은 중급이상 토픽 자격증을 따게 된다. 본조사 연구 참여자의 한국어능력시험 수준은 〈표 4〉와 같다.

〈표 4〉 본조사의 연구 참여자의 한국어능력시험 수준

초급(30명)			중급(36명)			고급(32명)	
없음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명 (7.1%)	6명 (6.1%)	17명 (17.3%)	17명 (17.3%)	19명 (19.4%)	27명 (27.6%)	5명 (5.1%)	

본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구글(google)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작성한 후 후에(Hue)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의 페이스북(facebook)에 링크를 올려서 연구 참여자들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에 참여한 학습자는 남자 1명, 여자 6명이다.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 1학년 학생 2명, 4학년 학생 2명, 베트남 내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고급 학습자 1명,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고급 학습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면대면으로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채팅(chatting)을 하면서 베트남어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2명의 고급 학습자는 직접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면서 베트남어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각자의 심층 면담은 40분부터 1시간까지 이루어졌다. 심층 면담 후 녹음 파일을 한국어로 번역 전사했고, 페이스북에 올린 텍스트는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심층 면담 결과는 본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해석하는 데 활용하였다.

2. 분석 결과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본조사에서 한국어 경어법에 관한 20개의 문항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98명의 연구 참여자를 조사하였다. 20개의 문항 중에서 19개의 문항은 객관식 문항이고 마지막 문항은 주관식 문항이다. 19개의 객관식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볼 목적으로 TestAn 1.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문항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본조사의 문항 분석 결과

평균 난이도	평균 변별도	Cronbach's α	측정 오차	평균값	표준편차	최저점수	최고점수	중앙값
.581	.382	.720	1.744	11.041	3.295	1	17	11

<표 5>를 통해 볼 때 전반적으로 문항 분석 결과가 잘 나왔다. 분석 대

상 문항을 고르기 위해 각 문항의 난이도, 변별도,²⁾ 그리고 신뢰도³⁾를 기준으로 검정하였다. 평균 난이도는 .581인데 난이도는 낮을수록 어려운 문제이고, 난이도가 높을수록 쉬운 문제임을 뜻한다. 변별도는 일반적으로 .30이 넘으면 변별도가 있는 문항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본조사의 문항은 변별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뢰도를 일컫는 Cronbach's α 는 문항 상호간의 어느 정도의 일관성과 동질성을 갖는가 여부를 나타낸다. 신뢰도의 척도인 α 가 0.6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본다(안광식, 2006). 본조사 문항의 평균 신뢰도(Cronbach's α)가 0.720이므로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급수별로 학습자의 문항 분석 결과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5-①〉 초급 학습자의 문항 분석 결과

평균 난이도	평균 변별도	Cronbach's α	측정 오차	평균값	표준편차	최저점수	최고점수	중앙값
.465	.363	.646	1.751	8.839	2.941	1	15	9

〈표 5-②〉 중급 학습자의 문항 분석 결과

평균 난이도	평균 변별도	Cronbach's α	측정 오차	평균값	표준편차	최저점수	최고점수	중앙값
.535	.277	.467	1.826	10.171	2.501	6	16	10

- 2) 남경옥(2012: 179)은 문항 변별도 지수에 의한 검사 도구의 신뢰도와 관련하여 Ebel(1979)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문항 변별도	문항 평가
.40 이상	변별도 높은 문항
.30-.39	변별도 있는 문항
.20-.29	변별도 낮은 문항
.10-.19	변별도 낮은 문항
.10미만	변별도 없는 문항

- 3) 신뢰도(reliability)란 측정하려 하는 것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느냐의 문제로, 검사도구가 얼마나 정확하게 오차 없이 측정하였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문항간의 상관계수가 높으면 신뢰도 계수가 높게 추정된다(성태제 1995: 54).

〈표 5-③〉 고급 학습자의 문항 분석 결과

평균 나이도	평균 변별도	Cronbach's α	측정 오차	평균값	표준편차	최저점수	최고점수	중앙값
.727	.349	.610	1.508	13.813	2.417	7	17	14

초급 학습자의 평균은 8.839, 중급 학습자는 10.171, 고급 학습자는 13.813으로 급수가 올라감에 따라 정답을 맞춘 비율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 외 문항 분석 결과도 유의미하게 나왔다.

본조사 20개 문항의 나이도, 변별도, 그리고 신뢰도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문항의 나이도, 변별도, 신뢰도

문항	나이도	변별도	신뢰도
1	.03	-.13	0.730
2	.73	.55	0.693
3	.86	.21	0.723
4	.48	.32	0.722
5	.86	.33	0.714
6	.97	.38	0.712
7	.81	.17	0.729
8	.52	.77	0.663
9	.65	.65	0.681
10	.48	.69	0.675
11	.22	.23	0.725
12	.95	.16	0.721
13	.63	.53	0.696
14	.48	.56	0.693
15	.61	.55	0.694
16	.50	.31	0.723
17	.20	.09	0.736
18	.65	.41	0.711
19	.41	.48	0.703
20	주관식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음영 표시는 분석 대상으로 선택된 문항을 나타낸다.

〈표 6〉을 통해 각 문항의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문항 1은 난이도가 낮으나 변별도가 음수 (-)라서 분석 대상으로 적합한 문항이 아니다. 그리고 문항 3, 문항 7, 문항 11, 문항 12는 변별도가 각각 .21, .17, .23, .16으로 낮게 나타나서 분석 대상으로 적합한 문항이 아니다. 또한, 문항 4, 문항 5, 문항 6, 문항 16은 신뢰도가 있는 문항이지만 변별도가 낮은 문항도 있고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높은 난이도 문항도 있어서 분석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 외에도 문항 17은 한국어 미숙자가 한국어 능숙자보다 정답을 더 많이 골랐다고 해석 가능하다. 변별도가 .09로 나타나서 이 문항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분석 대상은 문항 2, 문항 8, 문항 9, 문항 10, 문항 13, 문항 14, 문항 15, 문항 18, 문항 19와 주관식 문항 20으로 한정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본조사에서 추출된 것 위주로 해당 문항을 분석하고자 한다.

III. 한국어 경어법의 인식 및 사용 실태 분석

1. 한국어 경어법의 인식 조사 결과

첫째, 베트남 학습자의 한국어 경어법 습득 수준을 조사해 봤는데 ‘경어법을 잘 쓴다’라는 대답이 19%로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라는 대답이 45%로 가장 많았다. ‘잘 못 쓴다’라는 대답은 3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한국어 경어법을 잘 쓰는 학습자는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베트남 대학교에서 한국어 경어법 교육 내용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매우 만족스럽다’는 응답자는 28.6%, ‘만족스럽다’는 응답자는 40.5%로 나타났기 때문에 한국어 경어법 교육 내용이 자기에게 유익하고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학습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베트남 선생님의 한국어 경어법 교육 방법 만족도 여부에 관한 질문에서는 ‘매우 그렇다’ 0%, ‘그렇다’ 38.1%, ‘보통이다’ 38.1%, ‘그렇지 않다’ 19%, ‘매우 그렇지 않다’ 4.8%로 응답이 나타났다.

넷째, 교육을 받는 경어법 수업 시간 만족도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 ‘보통이다’라는 답은 순서대로 4.8%, 50%, 23.8%로 나타났고 ‘충분하다’와 ‘매우 충분하다’라는 답은 다만 21.4%로 나타나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섯째, 한국어 경어법 학습은 중요한 내용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에서는 88.9%의 학습자가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응답했고 나머지는 ‘보통이다’라고 하였다.

여섯째, 한국어 경어법은 베트남어 경어법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81%를 차지했는데 ‘매우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순서대로 2.4%, 4.8%, 21.4%로만 나타났다.

한국어의 경어법 표현이 주로 문법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하느냐는 일곱 번째 질문과 한국어의 경어법 표현이 주로 어휘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하느냐는 여덟 번째 질문에서 연구 참여자의 응답은 똑같았다. 57.1% 응답자가 한국어 경어법이 주로 문법에서 나타났다고 생각했고 동시에 57.1% 응답자가 한국어 경어법이 주로 어휘에서 나타났다고 인식하였다. 베트남 학습자는 한국어 경어법의 문법 범주와 어휘 범주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95.2% 학습자가 한국어 경어법을 더 많이 배우고 싶다고 응답했기 때문에 본 연구가 필수적인 연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한국어 경어법 사용 실태 분석 결과

예비조사에서도 한국어 경어법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다.⁴⁾ 이 과정에서 발생한 조사의 난점을 보완하여 본조사 문항을 확정하였다. 베트남 학습자 의 한국어 경어법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본조사 때 질문한 문항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표 7>과 같다.

<표 7> 본조사의 설문지의 내용

문항	친소 관계	화자(S) 청자(L) 관계	내용	범주
1	친	S < L	손녀는 할아버지의 이름 물음	이빨, 이→치아, 아프다→아프시다/편찮으시다
2	친	S < L	학생은 교수의 딸을 칭찬함	아이, 아들, 딸→따님
3	친	S < L	학생은 강사의 아내를 물음	집→댁, 있다→계시다/ 있으시다
4	소	S < L	학생은 첫 만남에 교수의 가족사진을 칭찬함	-(으)시다, 사람→분, 있다→계시다/있으시다
5	소	S = L	A사업가는 B사업가에게 첫 만남에 B사업가의 아내를 물음	아내→부인, 집사람, 배우자
6	소	S < L	직원은 손님에게 물음	주다→드리다/주시다
7	친	S < L	통역사는 사장에게 공식적인 회의에서 말함	주다→드리다/주시다, 말→말씀
8	소	S < L	신입사원은 과장에게 인사함	-(으)시다, 만나다→뵙다, 보다
9	친	S < L	신입생은 교수에게 숙제를 물음	묻다→여쭙다/물으시다
10	친	S = L	A학생은 B학생에게 C교수에 관한 문자를 보냄	-(으)시다, 객체 존대 사용 (반말과 존댓말 결합)
11	친	S < L	손자가 할머니에게 자기 어머니에 대해 말함	께서, 께, -(으)시다
12	소	S < L	간호사가 80대 남자 환자에게 물음	자다→주무시다, 께, 께서

4) 예비조사는 예상되는 조사의 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본조사 결과 위주로 기술하겠다.

13	소	S < L	베트남 대학생은 30대 중반 한국 남자에게 길거리에서 길을 물음	오빠, 형→형님, 저요
14	친	S > L	어머니는 아들에게 할아버지에게 생일 선물을 사 달라고 부탁함	께, 주다→드리다, 객체 존대 사용(반말과 존댓말 결합)
15	소	S = L	소개팅을 한 남자와 여자의 첫 만남	-(으)시다, 있다→계시다/ 있으시다, 나→저
16	소	S > L	통화로 음식 주문함	께, 주다 → 드리다/주시다, 구어와 문어에서 나온 경어법 차이
17	소	S < L	신입사원은 웃이 자기 상사에게 어울린다는 것을 칭찬함	님, 씨, 에게→께, -(으)시다
18	친	S < L	A선배는 바빠서 석사과정 B후배를 못 도와서 A는 자기의 C 대선배에게 부탁하겠다고 함	님, 에게→께, -(으)시다, 객체 존대 사용(반말과 존댓말 결합)
19	친	S < L	학생은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냄	님, -(으)시다, 있다→계시다/ 있으시다, 집→댁, 데리다→모시다
20	소	S > L	직원은 취업준비생에게 인터뷰에 관한 이메일 보냄	주다→드리다/주시다, 사람→분, 말→말씀

*읍영 표시는 분석 대상으로 선택된 문항을 나타낸다.

〈표 7〉에서 분석 대상으로 선택된 문항을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어휘적 오류

(1) ‘님’ 오류

베트남 학습자는 한국어 경어법을 쓸 때 ‘님’이라는 어휘적 오류를 범한다. 그런데 모든 호칭어 뒤에 ‘님’만 붙이면 경어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도 있다. 예컨대, ‘딸’과 ‘아들’은 ‘딸님’과 ‘아들님’으로 바뀌지 않고 ‘ㄹ’ 받침을 생략하여 ‘따님’, ‘아드님’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베트남어에서 경어법은 상대방의 나이와 직책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많은 베트남인 학습자는 〈문항 2〉에서 ‘따님’을 고르지 않았고 〈표 8〉처럼 ‘아들’, ‘딸’, ‘아이’라는 오답을 골랐다. 베트남인 학습자는 〈문

항 2>에서 교수에게만 경어 표현을 사용하고, 교수의 자녀가 아이라서 그 아이에게는 경어법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문항 2>에 나온 교수의 자녀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기 어렵다. 그러므로 연구 참여자들은 성별에 상관 없이 모든 남녀 아이들에게 공용되는 베트남어의 ‘em bé(앰배)’라는 말처럼 ④의 ‘아이’라는 오답을 ①의 ‘아들’ 및 ②의 ‘딸’이라는 오답보다 더 많이 골랐다.

<문항 2>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 (2) 교수님, _____ 진짜 귀여우시네요.
 ① 아들이 ② 딸이 ③ 따님이 ④ 아이가

<표 8> <문항 2>에서 ‘님’ 오류를 범하는 경우

구분	초급	중급	고급
① 아들이	2명 (6.7%)	3명 (8.3%)	-
② 딸이	4명 (13.3%)	3명 (8.3%)	1명 (3.1%)
③ 따님이	19명 (66.7%)	24명 (66.7%)	30명 (93.8%)
④ 아이가	5명 (16.7%)	6명 (16.7%)	1명 (3.1%)
합계	30명 (100%)	36명 (100%)	32명 (100%)

그 외에도 <문항 13>에서 ‘님’ 오류를 범하는 학습자도 <표 9>와 같이 많이 나왔다.

<문항 13>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 (13) 길거리에서 베트남 유학생이 낮선 30대 중반 한국 남자에게 말하는 상황
 ① 형, 경복궁에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하는지 혹시 아세요?
 ② 형님, 경복궁에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하는지 혹시 아세요?
 ③ 오빠, 경복궁에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하는지 혹시 아세요?
 ④ 저기요, 경복궁에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하는지 혹시 아세요?

〈표 9〉〈문항 13〉에서 ‘님’ 오류를 범하는 경우

구분	초급	중급	고급
① 형	1명 (3.3%)	-	-
② 형님	11명 (36.7%)	16명 (44.4%)	5명 (15.6%)
③ 오빠	2명 (6.7%)	1명 (2.8%)	-
④ 저기요	16명 (53.3%)	19명 (52.8%)	27명 (84.4%)
합계	30명 (100%)	36명 (100%)	32명 (100%)

〈표 9〉처럼 초급 학습자 중 36.7%, 중급 학습자 중 44.4%, 그리고 고급 학습자 중 15.6%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저기요’를 부르지 않고 ‘형님’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베트남에서는 상대방을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을 존경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공손하게 남자에게는 오빠/형/미스터(Mr)를 의미하는 ‘anh(안), ông(옹)’으로, 여자에게는 언니/누나/미즈(Ms)를 의미하는 ‘chị(찌), bà(빠)’로 인사하는 문화가 있다. 이로 인해 길거리에서 30대 중반 남자를 만났다는 상황에서는 ‘anh(안)’이라는 호칭어가 〈문항 13〉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응답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화자 본인의 성별에 따라 또한 상대방의 성별에 따라 호칭이 달라져서 형/오빠, 누나/언니라는 말이 따로 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영어의 ‘elder brother, elder sister’처럼 성별과 상관없이 남자에게는 ‘anh’(안), 여자에게는 ‘chị(찌)’라는 호칭어만 사용해서 〈문항 13〉에서 ①에 나온 ‘형’과 ③에 나온 ‘오빠’의 의미가 똑같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②에 나오는 ‘형님’이라는 표현도 ‘형’에 ‘님’을 붙여 낮선 상대방을 더 높이기 위한 표현으로 인식하는 학습자가 있어서 경어법의 어휘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2) 특수 어휘 오류

베트남 학습자들은 한국어 경어법을 쓸 때 특수 어휘에 관한 오류도 범

한다. <문항 19>를 본다면 틀리는 문장은 ④인데 <표 10>처럼 초급 학습자 중 26.7%, 중급 학습자 중 27.8%, 고급 학습자 중 65.6%만 ④를 골랐다.

<문항 19>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 (19) A학생은 졸업한 지 오래 되었는데 스승의 날이라서 옛날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 ① 교수님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 ② 덕분에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스승의 날이라서 웬지 교수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 ③ 교수님께 스승의 날을 맞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④ 이번 겨울 방학에 우리나라에 오시겠다고 하셨죠? 날짜를 알려주면 공항에 나가서 교수님을 우리 집에 데리고 갈게요.

<표 10> <문항 19>에서 특수 어휘 오류를 범하는 경우

구분	초급	중급	고급
① 교수 …	5명 (16.7%)	3명 (8.3%)	4명 (12.5%)
② 덕분에…	4명 (13.3%)	6명 (16.7%)	1명 (3.2%)
③ 교수님 …	13명 (43.3%)	17명 (47.2%)	6명 (18.8%)
④ 이번 …	8명 (26.7%)	10명 (27.8%)	21명 (65.6%)
합계	30명 (100%)	36명 (100%)	32명 (100%)

④의 틀린 곳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베트남 문화의 영향 때문이다. 왜냐하면 아래 (가)처럼 베트남에서는 지위가 높은 사람을 집에 초대하여 마중 하더라도 일반 사람과 마찬가지로 ‘데리다’를 의미한 ‘đưa về, dẫn về(뜨어 베, 쪐 베)’를 쓰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래 (나)처럼 일반 사람보다 더 높은 스님이나 불상을 다른 데에서 집까지 가지고 간다면 ‘đưa về, dẫn về(뜨어 베, 쪐 베)’를 쓰지 않고 ‘모시다’를 의미하는 ‘cung thỉnh(꿍 틴), thỉnh (틴)’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또한, 베트남 정부의 종교 위원회⁵⁾의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국민의 67.5%가 불교신자라고 한다. 이러한 종교적인 영향으로 부쳐

5) 베트남 정부의 종교 위원회 (<http://btgcp.gov.vn/plus.aspx/vi/1>)

는 일반 사람보다 더 존경을 받는 대상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베트남 학습자는 ‘모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교사에게 쓰는 대신 ‘데리다’라는 일반어휘를 써도 된다고 잘못 인식해서 ④의 틀린 곳을 찾은 학습자의 비율이 초급과 중급에서 낮게 나타난 것이다.

(가) Tôi/ đưa(dᾶn)/ cô giáo/ về nhà.

저는/데리다/선생님/(우리)집으로 간다.

(나) Hân hoan/ cung thinh/ sư/ về/ trụ trì/ chùa làng.⁶⁾

기쁘게/ 모시다/ 스님/ 가다/주관하다/마을 사원

Cung thinh/tượng Phật hoàng Trần Nhân Tông/tại/Thiền viện Trúc Lâm Bạch Mã.⁷⁾

모시다/찐난뚱 황제 불상/에서/쭉 람 박 마 사원

〈문항 19〉와 마찬가지로 〈문항 20〉에서 상대를 높이기 위해 ‘주다’를 ‘드리다’라는 특수 어휘로 바꿔야 하는데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해 많은 학습자는 잘못 인식하고 있다. 다만 초급 학습자 중 16.7%, 중급 학습자 중 38.9%, 고급 학습자 중 71.9%가 〈표 11〉⁸⁾처럼 ‘알려 줍니다’라는 오류를 발견하여 ‘알려 드립니다’로 바르게 고치게 되었다. 왜냐하면 ‘알려 주다’와 ‘알려 드리다’는 베트남어로 바꾼다면 ‘알려 주다’를 의미한 ‘cho biết(써 비엣)’라는 단어만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다), (라)처럼 상대방을 높

6) 베트남 불교 교단의 신문기사 (2013년 5월 6일자) <http://phatgiao.org.vn/phong-su-anh/201305/Han-hoan-cung-thinh-su-ve-tru-tri-chua-lang-10640/>

7) 베트남 불교 교단의 신문기사 (2014년 4월 20일자) <http://phatgiao.org.vn/phat-su-dia-phuong/201404/TT-Hue-Cung-thinh-tuong-Phat-hoang-Tran-Nhan-Tong-tai-Thien-vien-Truc-Lam-Bach-Ma-14192/>

8) 초급 30명, 중급 36명, 고급 32명 중에서 오류를 찾아 바르게 수정한 인원과 비율만을 제시하고 그 외 무응답이나 잘못 수정한 인원과 비율은 지면 관계상 제시하지 않음(이하 〈표 12〉, 〈표 16〉에서도 동일함).

이기 위해 ‘cho biết’(알려 주다)라는 동사를 변화시키지 않고 상대를 위한 ‘anh’(남자 청자의 경우), ‘chị’(여자 청자의 경우)라는 지칭어만 바꾸면 경어 표현이 된다.

(다) (남자 청자에게 말함) Tôi/ cho/ anh/ bíết/ lịch/ trình.

→ 저는/주다/오빠(형)/알다/일정

(라) (여자 청자에게 말함) Tôi/ cho/ chị/ bíết/ lịch/ trình.

→ 저는/주다/언니(누나)/알다/일정

〈문항 20〉

(20) 한국 여행사는 A졸업생의 이력서를 본 후에 A졸업생에게 몇 시에 면접을 보려 올 수 있는지 알려 달라고 이메일을 보냈다.

김민수님께,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과 같이 면접을 진행함을 알려 줍니다.

→ 알려 드립니다.

〈표 11〉〈문항 20〉에서 상대 존대 사용 오류를 찾고 고치는 경우

구분	초급	중급	고급
알려 줍니다 → 알려 드립니다	5명 (16.7%)	14명 (38.9%)	23명 (71.9%)

그런데 서론에서 논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경어법을 쓸 때 특수 어휘 중에서 동사 외에도 명사도 있으나 명사인 특수 어휘를 잘못 쓰는 베트남 학습자도 있다. 〈문항 20〉은 명사인 특수 어휘에 관한 경어법 오류가 있는데 〈표 12〉처럼 초급 학습자 중 6.7%, 중급 학습자 중 33.3%, 고급 학습자 중 53.1%만 이러한 오류를 발견하여 고치게 되었다.

〈문항 20〉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읽고 틀린 것을 찾아 바르게 고쳐 주십시오.

(20) 한국 여행사는 A졸업생의 이력서를 본 후에 A졸업생에게 몇 시에 면접을 보려 올 수 있는지 알려 달라고 이메일을 보냈다.

...생략...

면접은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라서 편하신 시간을 정해 주시고 말을 해 주세요.

→ 말씀

〈표 12〉〈문항 20〉에서 ‘말’이라는 오류를 고치는 경우

구분	초급	중급	고급
말 → 말씀	2명 (6.7%)	12명 (33.3%)	17명 (53.1%)

〈문항 20〉에서 낯선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회사원은 이메일을 받는 사람을 높이기 위해 ‘말’이라는 일반 어휘 대신 ‘말씀’이라는 특수 어휘를 써야 하는데 베트남 학습자는 ‘말’과 ‘말씀’의 차이를 잘 인식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말’과 ‘말씀’을 베트남어로 번역하면 틈에 해당하는 ‘lời nói(리이 노이)’라는 단어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베트남어에서는 주체를 높이기 위해 호칭이나 지칭어를 경어 표현으로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 주체에 속한 것(예를 들어,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이’)을 높이기 위한 경어 표현은 발달되지 않았다. 따라서 베트남 학습자는 상대방의 말을 언급할 때, 일반 사람처럼 ‘말’이라는 단어만 쓰지 ‘말’을 ‘말씀’으로 바르게 고치려는 인식이 부족하다.

2) 문법적 오류

(1) ‘-(으)시-’ 오류

주체 경어법을 쓰기 위해 동사 뒤에 ‘-(으)시-’를 붙여야 하는데 모든 동사 뒤에 ‘-(으)시-’를 붙인다고 하여 그 동사가 모두 경어 표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많은 베트남 학습자는 ‘-(으)시-’를 남용하여 다음과 같은 〈문항 8〉, 〈문항 9〉에서 각각 〈표 13〉과 〈표 14〉처럼 문법적 오류를 범하

는 경우가 많다.

〈문항 8〉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8) (신입사원은 상사에게 말함): 과장님,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_____.

- ① 만나요 ② 만나세요 ③ 봐요 ④ 봤어요

〈표 13〉 〈문항 8〉에서 ‘-(으)시’ 오류를 범하는 경우

구분	초급	중급	고급
① 만나요	-	1명 (2.7%)	-
② 만나세요	23명 (76.7%)	20명 (55.6%)	-
③ 봐요	2명 (6.6%)	-	1명 (3.1%)
④ 봤어요	5명 (16.7%)	15명 (41.7%)	31명 (96.9%)
합계	30명 (100%)	36명 (100%)	32명 (100%)

〈문항 9〉

(9) (학생은 교수에게 말함): 교수님, 숙제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_____ 돼요?

- ① 물어도 ② 물으셔도 ③ 여쭤봐도 ④ 물어봐도

〈표 14〉 〈문항 9〉에서 ‘-(으)시’ 오류를 범하는 경우

구분	초급	중급	고급
① 물어도	2명 (6.7%)	6명 (16.7%)	-
② 물으셔도	8명 (26.7%)	4명 (11.1%)	-
③ 여쭤봐도	12명 (40.0%)	21명 (58.3%)	30명 (93.8%)
④ 물어봐도	8명 (26.7%)	5명 (13.9%)	2명 (6.3%)
합계	30명 (100%)	36명 (100%)	32명 (100%)

〈문항 8〉과 〈문항 9〉에서 높이는 대상은 객체 경어법의 대상인데 학습자는 주체 경어법이라고 생각해서 ‘만나다’, ‘묻다’ 등의 동사 뒤에 ‘-(으)시-’를 붙여서 ‘만나세요’, ‘물으셔도’라는 오답을 고르는 학습자가 많았다. 또한, ‘보다’, ‘묻다’ 등의 어휘는 특수 어휘가 없다고 생각하여 ‘봐요’, ‘물어

도’라는 일반 어휘를 고른 학습자도 있다.

‘-(으)시-’ 오류는 주로 초급 학습자와 중급 학습자에 의해 발생했다. 고급 학습자는 객체를 높이기 위한 특수 어휘 사용의 오류가 매우 낮았으며 -(으)시- 오류도 매우 낮았다.

〈문항 8〉과 〈문항 9〉 외에도 ‘-(으)시-’ 남용으로 학습자가 오류를 범하는 사례가 〈문항 15〉에서도 발견된다. 〈표 15〉처럼 초급 학습자 중 56.6%, 중급 학습자 중 44.5% 고급 학습자 중 84.4%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고 정답을 잘 골랐다.

〈문항 15〉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15) 남자와 여자는 소개팅을 통해서 처음 만났다. 남자는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다음 주말에 시간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영화를 같이 보자고 했는데 여자는 식당에서 큰 소음이 나는 바람에 잘 못 들었다. 그러자 여자는 다시 물어보고 남자는 다시 말을 했다.

① 여: 뭐라고 하셨어요?

남: 다음 주말에 시간이 있으면 나랑 같이 영화를 보자고 했어요.

② 여: 뭐라고 하셨어요?

남: 다음 주말에 시간이 있으시면 저랑 같이 영화를 보자고 했어요.

③ 여: 뭐라고요?

남: 다음 주말에 시간이 있으면 저랑 같이 영화를 보시자고 했어요.

④ 여: 뭐라고요?

남: 다음 주말에 시간이 있으시면 저랑 같이 영화를 보시자고 했어요.

〈표 15〉 〈문항 15〉에서 ‘-(으)시-’ 오류를 범하는 경우

구분	초급	중급	고급
① 여: 뭐…	5명 (16.7%)	7명 (19.4%)	1명 (3.1%)
② 여: 뭐…	17명 (56.6%)	16명 (44.5%)	27명 (84.4%)
③ 여: 뭐…	5명 (16.7%)	7명 (19.4%)	1명 (3.1%)
④ 여: 뭐…	3명 (10.0%)	6명 (16.7%)	3명 (9.4%)
합계	30명 (100%)	36명 (100%)	32명 (100%)

〈문항 15〉에서 오답 ③을 고른 학습자가 다른 오답지를 고른 학습자보

다 많다. 베트남인 학습자는 한국어의 경어법의 규칙에 따라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상대방을 높이기 위한 경어법을 써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항 15>에서 시간이 있는지 여부는 여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고, 영화를 보는 문제는 화자와 청자가 함께 한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하여 경어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인식은 부족했다. <문항 15>에서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대답할 사람은 청자이자 여자이므로 ‘시간이 있으면’ 대신에 ‘시간이 있으시면’을 써야 한다. 하지만 영화를 보는 행동은 여자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이 함께 보는 것이라서 ‘동사 + -(으)시 -’를 쓰면 화자가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꼴이 되어 맞지 않는 표현이다.

또한 오답 ①을 선택하는 이유는 베트남의 언어와 문화 때문이다. 베트남에서 남녀는 결혼하거나 사랑하거나 소개를 받는 사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여자는 동생을 의미하는 ‘em(엠)’이라고 부르고, 보통 남자에게는 오빠를 의미하는 ‘anh(아잉)’이라고 불러야 한다. 따라서 <문항 15>에서 남자는 여자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여 동사의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고 호칭이만 바꾸면 존댓말이 된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 그 결과 오답 ①을 고른 학습자의 비율이 정답 다음으로 높은 것이다.

(2) ‘동사+아/어 주다’ 오류

<문항 20>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읽고 틀린 것을 찾아 바르게 고쳐 주십시오.

(20) 한국 여행사는 A졸업생의 이력서를 본 후에 A졸업생에게 몇 시에 면접을 보려 올 수 있는지 알려 달라고 이메일을 보냈다.

김민수 님께,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회사에 지원해 드려서 감사합니다. (×)

→ 지원해 주셔서 (O)

〈표 16〉〈문항 20〉에서 ‘동사+아/어 주다’ 오류를 고치는 경우

구분	초급	중급	고급
지원해 드려서 → 지원해 주셔서	4명 (13.3%)	8명 (22.2%)	19명 (59.4%)

〈표 16〉처럼 일부 학습자만 〈문항 20〉의 ‘동사+아/어 주다’ 오류를 발견하여 바르게 고칠 수 있었다. 나머지는 모국어인 베트남어의 영향으로 이러한 오류를 찾지 못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한국어 어순인 SOV와는 달리 베트남어 어순은 SVO라서 베트남어로 바꿀 때 다음 (마)처럼 문장을 만들 수 있다.

(마) Cám ơn/ vì/ anh/ đã / dù tuyển / vào(cho) / công ty / chúng tôi.
 감사하다 / 왜냐하면 / 본인 / 았-었다 / 지원하다 / 주다 / 회사 / 저희

즉, 한국어로 ‘A은/는+B에게+동사+주다’를 쓰는데 베트남어로 바꿀 때 ‘A+동사+주다+B’라는 말을 쓰면 된다. 특히, 베트남어는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를 서로 바꾸면 의미가 달라진다. 즉, ‘B+ 동사+주다+A’로 쓸 때 주어는 B이고 목적어는 A이다. 따라서 베트남어는 한국어와 달리 ‘이/가; 은/는; 께서’ 등의 주격 조사와 ‘에게; 께’ 조사가 없는데 A와 B의 호칭어를 통해 누가 더 높은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체 경어법과 객체 경어법과 상관없이 ‘주다’를 의미한 ‘cho’ 동사의 형태가 변화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어 경어법은 주체 경어법과 객체 경어법에 따라 ‘주다’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즉, 주체 경어법이라면 ‘주다’는 ‘주시다’로 바꿔야 하는데 객체 경어법이라면 ‘주다’는 ‘드리다’로 바꿔야 한다. 그런데 베트남 학습자는 모국어의 영향 및 한국어 경어법 체계 분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주다’라는 일반 동사를 높이기 위해 ‘드리다’라는 특수 어휘로 바꾸기만 하여 주체 경어법을 잘못 쓰게 되었다.

(3) 객체 존대 사용 오류

객체 존대 사용 오류는 청자와 화자, 그리고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진 복잡한 관계로 발생한다.

① 제3자 > 화자 = 청자

〈문항 10〉에서 A학생은 B학생에게 김 선생님에 대한 문자를 보냈다. 문제는 화자와 청자가 대등한 관계이고, 제3자는 화자와 청자보다 더 높은 지위의 사람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화자는 자기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제3자에게 경어법을 써야 한다. 동시에 또래 집단에 속한 청자에게 이 내용을 전달할 때는 경어법을 쓰지 않아야 한다. 이 때문에 A학생은 김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오다’ 동사 뒤에 -(으)시-’를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B학생을 위해 반말도 결합하여 표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표 17〉처럼 많은 학습자는 오답 ④를 선택하였다. 이들은 화자와 청자, 그리고 주체의 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하여 김 선생님을 위한 주체 경어법만 쓰고 B학생을 위한 반말과의 결합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문항 10〉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10) (A학생은 B학생에게 문자를 보냄):

민수야, 자? 얼른 와. 김 선생님이 _____.

- ① 왔어 ② 왔어요 ③ 오셨어 ④ 오셨어요

〈표 17〉 〈문항 10〉에서 객체 존대 사용 오류를 범하는 경우

구분	초급	중급	고급
① 왔어	6명 (20.0%)	7명 (19.4%)	1명 (3.1%)
② 왔어요	2명 (6.7%)	1명 (2.8%)	-
③ 오셨어	8명 (26.6%)	13명 (36.1%)	25명 (78.1%)
④ 오셨어요	14명 (46.7%)	15명 (41.7%)	6명 (18.8%)
합계	30명 (100%)	36명 (100%)	32명 (100%)

<문항 10>에서 베트남 학습자가 오류를 범하는 것은 베트남에서 화자와 청자가 대등한 관계이고 제3자가 이들보다 더 높을 경우 제3자를 높이기 위한 존댓말만 사용하고 청자를 위한 반말을 사용하지 않는 데 기인한다. 선생님을 높이고자 할 경우 (바), (사)처럼 베트남어에서는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반드시 주어로 사용하되, 동사의 형태는 바꾸지 않는다.

(바) Bạn ấy/đã/đến.

그 친구/았·었/오다

(사) Cô giáo/đã đến.

선생님/았·었/오다

② 제3자 > 화자 > 청자

<문항 14>는 화자가 어머니이고 청자는 아들인데 제3자가 할아버지라서 제3자를 위한 경어 표현을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에게’를 ‘께’로, ‘주다’라는 일반 동사를 ‘드리다’라는 특수 어휘로 바꿔야 한다. 게다가 아들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 경어법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베트남 학습자들이 할아버지에 관한 경어법만 생각하여 <표 18>처럼 초급 학습자 중 26.7%, 중급 학습자 중 25.0%, 고급 학습자 중 6.2%가 오답 ④를 골랐다.

그런데 <문항 14>에서 화자(어머니)는 제3자(할아버지)를 위한 객체 경어법을 쓸 뿐만 아니라 청자(아들)를 고려한 반말을 동시에 결합해야 맞는 표현을 쓸 수 있다. 결국 객체 경어법과 상대 경어법을 잘 구분하고 화자, 청자, 그리고 제3자의 관계를 잘 고려한 초급 학습자 중 33.3%, 중급 학습자 중 38.9%, 고급 학습자 중 68.8%가 정답 ②를 선택하게 되었다.

〈문항 14〉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14) 내일 할아버지의 생신인데 어머니가 바빠서 자기 아들인 민수에게 케이크를 사 달라고 부탁한다.

- ① 민수야, 이따가 할아버지께 케이크를 사 줄래요?
- ② 민수야, 이따가 할아버지께 케이크를 사 드릴래?
- ③ 민수야, 이따가 할아버지께 케이크를 사 주실래?
- ④ 민수야, 이따가 할아버지께 케이크를 사 드릴래요?

〈표 18〉 〈문항 14〉에서 객체 존대 사용 오류를 범하는 경우

구분	초급	중급	고급
① 민수야, …	8명(26.7%)	10명(27.8%)	5명(15.6%)
② 민수야, …	10명(33.3%)	14명(38.9%)	22명(68.8%)
③ 민수야, …	4명(13.3%)	3명(8.3%)	3명(9.4%)
④ 민수야, …	8명(26.7%)	9명(25.0%)	2명(6.2%)
합계	30명(100%)	36명(100%)	32명(100%)

〈문항 14〉와 마찬가지로 〈문항 18〉에서도 화자는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고 제3자는 가장 높으며 청자는 가장 낮은 사람이다. 그런데 〈표 19〉처럼 초급 학습자 중 40.0%, 중급 학습자 중 69%, 고급 학습자 중 81.2%는 정답 ③을 고르게 되었다. 〈문항 18〉은 〈문항 14〉에 비해 제3자(김명숙 선배)를 높이기 위해 상대 경어법을 써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에게’ 조사를 ‘께’ 조사로 바꿔야 한다. 그런데 〈문항 14〉와 〈문항 18〉은 차이가 난다. 〈문항 14〉에서는 케이크를 선물로 받는 사람은 제3자(할아버지)인데 〈문항 18〉에서는 좋은 논문을 받는 사람은 제3자(김명숙 선배)가 아니라 청자(A학생)이다. 따라서 화자(B학생)는 청자(A학생)보다 연배가 더 높아서 화자는 청자에게 ‘부탁해 줄게’라는 반말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문항 18〉에서 정답은 ③이다.

〈문항 18〉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18) 수업이 끝나자마자 A는 B선배에게 자기 논문을 수정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B는 이번 주 좀 바빠서 못 할 것 같다고 한다. 그러자 B는 A가 너무 급하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고 수료한 김명숙 선배에게 한번 부탁해 주겠다고 했다.

A: 언니, 오늘 시간이 있어요?

B: 왜? 난 이번 주 너무 바쁜데. 왜? 무슨 일이 있어?

A: 논문을 쓰고 있는데 너무 엉망이어서 언니에게 보여주려고 해요. 혹시 제 논문 좀 봐 주실래요?

B: 네가 다음 주 중간발표이지? 너무 급한데 난 일이 많아서 못 할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아, 참, 김명숙

너의 논문을.

- ① 선배님께 봐 달라고 부탁해 드릴게
- ② 선배님에게 봐 주라고 부탁하실게
- ③ 선배님께 봐 달라고 부탁해 줄게
- ④ 선배님에게 봐 주시라고 부탁할게

〈표 19〉 〈문항 18〉에서 객체 존대 사용 오류를 범하는 경우

구분	초급	중급	고급
① 선배님께…	11명(36.7%)	3명(8.3%)	2명(6.2%)
② 선배님에게…	3명(10.0%)	1명(2.8%)	1명(3.2%)
③ 선배님께…	12명(40.0%)	25명(69.4%)	26명(81.2%)
④ 선배님에게…	4명(13.3%)	7명(19.5%)	3명(9.4%)
합계	30명(100%)	36명(100%)	32명(100%)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 학습자는 한국어 경어법을 쓸 때 어휘적 오류와 문법적 오류를 모두 범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학습자가 한국어 경어법 오류를 범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경어법과 베트남어 경어법 체계가 다르게 형성된다. 베트남어 경어법은 주로 호칭어와 특수 어휘 등 어휘로만 나타났는데 한국어 경어법은 어휘와 문법적으로 모두 나타났다.

둘째, 다음과 같은 심층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어 경어법의 개념, 유형, 특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학습자가 있다.

(인터뷰 사례 1)

연구자: 경어법이 무엇이에요?

학습자A: 경어법이란 상대방을 존경하기 위해 어휘와 문장 형식이 바뀌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경어법을 쓰기가 상황과 대화 상대방에 따라서 다르지도 해요.

연구자: 경어법은 어떻게 나누어져요?

학습자A: 경어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경어법을 쓰기 위해 단어가 완전히 다른 단어로 바뀌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동사 뒤에 ‘세요’나 ‘(으)시’를 붙이는 것이에요.

(학습자A, 여, 4학년, 중급)

(인터뷰 사례 2)

연구자: 경어법이 무엇이에요?

학습자B: 경어법은 상대방을 존경하기 위한 쓰는 법이에요. 경어법의 대상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거나 자기보다 더 어린 사람이라도 처음 만나서 예의를 지키기 위해 경어 표현을 써야 하는 사람이에요.

연구자: 경어법은 어떻게 분류돼요?

학습자B: 경어법은 두 가지로 분류돼요. 하나는 상대방을 존경하는 법이고 또 하나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법이에요. 특히,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우는 저는 S회사에서 실습했을 때 직접 목격했거든요. 경어 표현을 똑같이 쓰는데도 화자의 목소리, 억양에 따라서 상대방을 존경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학습자B, 남, 4학년, 중급)

(인터뷰 사례 3)

연구자: 경어법이 무엇이에요?

학습자C: 경어법이란 웃 사람을 존경하고 낯선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며 자기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방식을 보여주는 것을 말해요.

연구자: 경어법은 어떻게 나누어져요?

학습자C: 경어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경어 표현을 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위해 예의 바르게 지키는 것이에요. 전자는 가장 높은 존경 형식이고 후자는 자기를 낮추면서 예의를 잘 지키는 형식이에요. 그리고 경영하는 경우에는 파트너를 만날 때 예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 경어법을 써야 해요.

(학습자C, 여, 졸업생, 고급)

(인터뷰 사례 1, 2, 3)의 내용처럼 경어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어떤 상황이 주체 경어법인지 상대 경어법인지 객체 경어법인지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류를 범했다.

셋째, 베트남에서 후에(Hue)외국어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육도 2008년부터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노이(Hanoi), 호치민(Hochiminh)이라는 대도시보다 더 늦게 형성되어서 한국어 교육 방식, 교수진의 전문성, 한국어 교재 개발 등에 관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특히, 한국어 경어법 습득은 어려운 일 중의 하나인데 학습자는 다음의 인터뷰 내용처럼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경어법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인터뷰 사례 4)

연구자: 경어법은 어떻게 나누어져요?

학습자D: 3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명사, 형용사, 동사예요.

연구자: 그렇게 배웠어요? 아니면 스스로 생각했어요?

D학습자: 제가 스스로 생각했어요, 선생님.

연구자: 그럼 학교에서 경어법을 어떻게 배웠어요?

학습자D: 그냥 경어법을 쓸 때 동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명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특별한 어휘가 뭐가 있는지 배우기만 했어요.

(학습자D, 여, 2학년, 초급)

심층 면접 이후 초급 학습자는 처음 한국어 경어법을 어떤 식으로 배우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들의 필기 노트를 살펴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그림 1>처럼 한국어 경어법에 관한 수업에서 경어법 해석 내용도 깊이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림 1> 한국어 경어법 필기 노트

<그림 1>은 베트남 학습자가 한국어 경어법을 배우는 상황에서 수업 시간에 필기한 노트이다. 베트남어와 한국어로 메모했기 때문에 이를 번역하여 소개하면 <표 20>과 같다.

<표 20> 한국어 경어법 필기 노트 번역

페이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에 관한 명사에: + 이/가→께서; + 은/는→께서는; + 에게/한테→께 - 있다: + '소유하다'를 의미한 '있으시다'(물건에 쓰는 말) + '머물다, 거주하다'를 의미한 '계시다'(사람에게 쓰는 말) - 없으시다: + '소유하지 않다'를 의미한 '없으시다'(물건에 쓰는 말) + '머무르지 않다, 거주하지 않다'를 의미한 '안 계시다'(사람에게 쓰는 말) - 먹다: + 잡수시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쓰는 말) + 드시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쓰는 말) - 주다 + 주시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쓰는 말) + 드리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쓰는 말) - 아프다→편찮으시다 - (으)시 + 어/어/여요→(으)세요: 높임말 - (으)시 + 어/어/여요→(으)세요: 높임말

페이지 2	<p>한국어 경어법을 쓸 때 다음과 같은 단어는 변화가 된다.</p> <p>이름 → 성함, 나이 → 연세, 생일 → 생신, 밥 → 진지, 우리 → 저희, 죽다 → 돌아가시다, 자다 → 주무시다, 만나다 → 뵙다, 말하다 → 말씀하시다, 묻다 → 여쭈다, 집 → 댁, 사람/명 → 분</p>
페이지 3	<p>경어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사/형용사-(으)시; - 명사-(이)시 <p>*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임으로써 경어를 표현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다 → 하시다 - 읽다 → 읽으시다 - 공부하다 → 공부하시다 - 선생님이다 → 선생님이시다

〈표 20〉의 학습자 자료를 통해 볼 때, 베트남 학습자들은 규칙 적용에 초점을 두어 경어법을 배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베트남 학습자들은 한국어 경어법 개념만 간단하게 배우고 실제적인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 98명의 베트남 초·중·고급 학습자의 경어법 인식 및 경어법 사용 양상을 살펴봤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어 경어법의 개념, 유형, 특징을 잘 파악하는 학습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어휘로 표현되는 베트남어 경어법 및 어휘와 문법으로 모두 표현되는 한국어 경어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결혼여성이민자로 하여금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한국어 경어법 사용 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내 한국어 전공자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가정 범위를 넘어서 학교, 직장, 사회, 길거리 등의 다양한 장소에서 화자와 청자 사이나 화자, 청자, 그리고 제 삼

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어법의 실제적인 상황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첫째, 타당한 문항별로 베트남 학습자의 경어법 오류를 분석함으로써 그들이 한국어 경어법을 쓸 때 ‘님’ 오류, ‘특수 어휘’ 등의 어휘적 오류 및 -(으)시-’ 오류, ‘동사 + 아/어 주다’ 오류, ‘객체 존대 사용’ 오류 등의 문법적 오류를 범하게 됨을 고찰하였다. 둘째, 초급 학습자는 경어법 오류를 가장 많이 범했는데 한국어를 능숙하게 할수록 한국어 경어법 오류를 범하는 비율이 감소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셋째, 본 연구에서 베트남 학습자는 언어·문화 차이, 한국어 경어법 인식, 한국어 경어법 교육 방식 등의 이유로 한국어 경어법 오류를 범함을 밝혔다. 후속 연구로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경어법 습득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18. 4. 30. 투고되었으며, 2018. 5. 8. 심사가 시작되어 2018. 6. 1.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구엔민충(2007),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호칭어 대조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인(2002), 「한국어의 높임법 체계」, 『돈암어문학』 15, 125-147.
- 김혜련(2009),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공손 표현 오류 분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카가와 마사오미(2007), 「일본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경어법 교육 연구: 중급단계의 말하기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18(1), 101-130.
- 남경옥(2012), 「교내 학업성취도 평가 문항분석을 통한 초등학교 영어 평가의 유용도 연구」, 초등영어교육 18(2),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173-211.
- 남기심·고영근(1985),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 다오티미칸(2004), 「한국어와 베트남어 친족호칭어지칭어 비교 분석: 서울말과 하노이 말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딘란 흐엉(2010), 「호칭어에 반영된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 비교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루단 투이(2011),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인칭 대명사 대비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현원(2013),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호칭어·지칭어 오류 양상과 원인 분석: 언어학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태제(1995), 『타당도와 신뢰도』, 서울: 양서원.
- 안광식(2006), 「교육연구논문 작성을 위한 교육통계방법」, 인터비전.
- 응원옥민향(2015), 「베트남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높임법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성(2008), 「한국어 높임법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 조사 및 역할극을 활용한 교수-학습 전략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미경(2013), 「베트남 여성 결혼이민자의 친족내 한국어 경어법 오류 양상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쩐티 하이 하(2015),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높임법 비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Hoang Thi Bich Ngoc(2014), 「한국어와 베트남어 경어 표현의 대조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Ebel, R. L. (1979), *Essential of educational measurement*(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 Hall.

베트남 학습자의 한국어 경어법 오류 양상 연구

판황미트엉 · 권순희

본 연구는 베트남 학습자가 한국어 경어법 사용의 정확성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 연구이다. 2017년 11월부터 12월 10일까지 베트남 내 후에(Hue) 외국어대학교에 소속된 98명의 초·중·고급 한국어 전공 베트남 학습자의 경어법 사용 양상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라 베트남 학습자는 ‘님’ 오류, ‘특수 어휘’ 등의 어휘적 오류 및 -(으)시-’ 오류, ‘동사 + 아/어 주다’ 오류, ‘객체 존대 사용’ 오류 등의 문법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베트남 학습자가 자주 범하는 한국어 경어법 오류 유형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국어 경어법을 사용함에 있어 범하는 다양한 오류의 원인을 밝힐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가 범하게 되는 경어법 오류 현상을 비교 언어학적 관점에서 그 원인을 규명하여 경어법 교수학습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핵심어 한국어 경어법 오류, 어휘·문법 오류,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

ABSTRACT

Errors in Use of Korean Honorifics by Korean Learners in Vietnam

Phan Hoang My Thuong· Kwon Soonhe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ccuracy of the use of Korean honorifics by Korean Learners in Vietnam. From November 2017 to December 2017, 98 elementary, intermediate, and advanced Korean Learners at Hue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s in Vietnam were given a survey to find the errors pattern when they use Korean honorifics. Questionnair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TestAn 1.0 for Windows, a statistical testing tool. Results showed that the students made vocabulary errors such as respect to someone by using 'nim(님)' and 'special vocabularies(특수 어휘)'. For example, we can use 'nim' for 선생님(teacher), 기사님(driver), etc. Also, general vocabularies such as 집(home), 이(teeth), 자다(sleep), 있다(stay) will be changed into the special vocabularies such as 댁(home), 치아(teeth), 주무시다(sleep), 계시다(stay). And the students also made grammatical errors such as using '-(으)시-' prefinal ending(선어말어미) after verbs, doing something for someone (Verb+ 아/어 주다), and referencing the third person. Examples of errors in referencing the third person include student A referencing a teacher to student B, or a mother referencing her father-in-law to her son.

In addition, this study not only found the types of errors in Vietnamese learners using the Korean honorifics, but also identified the causes of various errors in their use of Korean honorifics. Using a comparative linguistic point of view, 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about teaching and learning the honorific method by examining the causes of the errors made by Korean Learners in Vietnam.

KEYWORDS Errors of Korean Honorifics, Vocabulary and Grammatical Errors, Korean Learners in Vietnam